

## 존 웰스 교수의 초청 강연 초록

John Wells

< 다음은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음성학회의 초청으로 내한한 런던대학의 음성학, 언어학과 교수인 존 웰스 교수가 1987년 9월 22일에 한글학회 강당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장에서 "현대 세계의 음성학"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특별강연의 초록이다. 전반부는 생략하고 후반부만을 원문과 우리말로 옮겨 실는다.>

It is an honour to be speaking on phonetics at the invitation of the Phonetic Society of Korea. Through the Korean Hangeul script, invented in the fifteenth century at the instigation of the great King Sejong, and the work Hunminjeongeum which describes it, this country has an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history of phonetics.

Phonetics is the description and analysis of pronunciation. Spoken language can be investigated at three points: in the speaker (articulatory phonetics), in the hearer (auditory phonetics), and in the physical speech signal (acoustic phonetics)...

Beginners in English who are Korean mother tongue have to learn to make the sound 'f' as in "coffee", which is a voiceless labio-dental fricative, lip on upper teeth. They also have to learn to make [θ] sound in "think", a

voiceless dental fricative.

This, I think, is obvious but foreign languages don't involve the sounds of one's mother tongue together with some additions. In fact, each language has its own phonological rules.

We take the same example again. I can consider that earlier Korean has this phonological rule relating the lateral and the tap. Useful phrases for visitors to Korea such as me include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 jaŋaɾɯl hal cul asimnik'a ]. And they will notice that the [l] at the end involves a [r] and a [l] although you write them both in the same way, they sound differently, they certainly sound different to me. Because Korean has the phonological rule that says you use a tap before a vowel sound but a lateral elsewhere. They are in a similar relationship to one another. Before vowel sounds, we use the clear-l as in "let"[let], but elsewhere, we use the dark-l, the sound [l̠], a velarized lateral as in "tell" [tʰel]. So English has this phonological rule about two kinds of "l".

German has a rule relating two different sounds made with body of the tongue, two voiceless fricatives. One of them is the sound [x] as in "Buch, das Buch", means the book, this is the one used after back vowels. The other one is the sound [ç], "ich" a voiceless palatal fricative, as in the word "sich", this one is used after front vowels.

One of the problems of language learners is that the writing system of a language may not be always a very good guide to pronunciation. Here is a list of some languages with my impression of how helpful the writing system is to the learner, the foreign learner. Finnish, the language of Finland, is very straightfoward from this point of view. You pronounce a exactly as it's written.

Spanish is very straightfoward if you know the rules, but they are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Korean is fine as I've said, but there are two problems in Korean. One is what happens when syllables come next to one another, because certain changes occur across the boundary, and the other is the fact that you persist in using a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which of course are very difficult to the foreign learners.

English you will know about. The spelling gives you some kind of helpful guide to pronunciation but it's not wise to rely on it. Really you need to look up or find out the pronunciation of each new English word you learn. And worst of all, without any doubts, is Chinese because you really can't predict any certainty. There are again a number of principles, and you can learn all sorts of principles that will help you, but it's not sufficient.

This means that I must strongly recommend using phonetic transcription together with appropriate phonetic

drills. A brief mention of two other areas of application of phonetics: one of them is acting. Phonetics is of use to the actor who wants to be able to adopt special types of pronunciation for dramatic purposes. Phonetics is also of use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hen, for example, people accused of blackmail or other crimes, may be convicted or alternatively acquitted, because of expert evidence about speaker identity.

And now linguistics. Since the primary medium of language is speech, phonology necessarily constitutes a most important part of linguistics. Phonetics is indispensable in descriptive work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previously unknown languages and in dialectology. The range of pronunciation possibilities attested in the world's languages is enormous. Carefully comparing different languages and describing them, observing them enables us to make important hypotheses about linguistic universal. And this has inspired various theories of phonology including the three we here mention, phonemics, generative phonology, and autosegmental phonology, and the last of which was inspired mainly by problems of describing the tone of African languages.

Lastly, I'd like to speak a little bit about British phonetic tradition. The most famous British phonetician was Daniel Jones. He built on work done by pioneers such as Sweet at Oxford, Passy, a Frenchman and Vietor, a German. His great success was to establish phonetics as

an independant academic discipline in the United Kingdom. And he founded the Department of Phonetic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the present century. It's now been expanded and combined with the newer discipline of linguistics into a Department of Phonetics and Linguistics that's the department of which I have the honour to be a member.

And I'm proud to say that this department has retained a leading position in the world in the subject of phonetics. After Jones' death, in due course A.C.Gimson became the head of the department. Prof. Gimson has written several important standard works about the phonetics of English. Another professor, recently retired, still alive is J.D. O'Connor who, has done very important work again on English intonation and also on general phonetics. And students, former students of the department trained there are now found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many illustrious former students of the department. And I'm happy today to congratulate two of them. One of them is Prof. Hyun-Bok Lee and the other is Prof. Ryu Man-Kun. Congratulations to both!

Thank you !

\*\*\*\*\*

대한음성학회의 초청으로 음성학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5세기 세종 대왕께서 만드신 한글과 그것을 기술한 훈민정음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 음성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성학은 말소리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말소리는 세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관찰 (조음 음성학), 듣는 사람에 대한 연구 (청음 음성학), 그리고 물리적인 소리의 신호에 대한 관찰 (음향 음성학)...

한국어를 모국어로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때 순치음 'f' 소리를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와 입술이 접근해서 나는 소리지요. 아까도 나왔던 무성 치음, 치마찰음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의 소리란 자기말의 소리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몇개의 소리를 더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어마다 고유의 체계가 있고 음운론적인 규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같은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한다할 때,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를'이라는 토시에는 'ㄹ'이 두 개 있지만 하나는 튀김소리, 한나는 설측음으로 서로 다릅니다. 한국어의 음운 규칙이 바로 여기 적용되는 거죠. 한국어의 음운 규칙은 모음 앞에서는 튀김소리 [ㄹ]로 하라, 그러나 그 밖의 위치에서는 설측음으로 하라, 이런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는 'l'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설측음 'l'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역시 한국어와 유사한 관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홀소리 앞에서 나는 소리는 밝은 'l'이라고 해서

듣기에 상당히 밝습니다. 'let'에서 나는 소리지요. 그러나 그 밖의 위치에서는 어두운 'l'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tell'같은 데서 나는 [l]인데 그것은 뒤혀를 입천장으로 상당히 올리고, 뒤로 밀어내어 내는 소리입니다. 영어도 이 두 'l'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쓰여야 한다는 음운 규칙을 지키고 있는거죠.

독일어는 헛몸으로 내는 두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음운 규칙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후설 모음이 앞에 있으면 'Buch'에서와 같이 [x]가 되고 전설 모음이 있으면 'sich'에서의 [ç]처럼 앞에서 나는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나라마다 문자 체계가 있습니다만 문자체가 발음을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나타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문자 체계가 발음 공부를 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예시해 놓았습니다. 핀란드 말의 맞춤법은 발음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쓴 대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에 가깝게 나게 됩니다. 스페인 말도 규칙을 알면 어려운 것이 없지만, 아까 말한 핀란드 말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한국어는 이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나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음절이 연결될 때 거기서 소리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자를 계속 쓰기 때문에 외국인도 볼때에는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철자가 다소 발음을 나타내 주기는

하나, 거기에 너무 기대서는 안됩니다. 영어는 배우는 낱말마다 발음을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어의 경우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자를 보고 발음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발음 규칙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실제로 글자를 보고 올바른 발음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따라서 문자가 소리를 잘못 나타내는 경우일수록 더욱 음성 문자를 써서 정확한 발음을 나타내 줄 필요가 생기는 것이며, 동시에 발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성학은 또한 연극 배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를 가장 유효 적절하게 발음해서 청중에게 전달되게 하려면 음성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음성학은 또 아까 조금 말씀 드렸습시다만 범죄 수사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 감정을 해서 '진범이다 아니다' 또는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하는 경우를 가려낼 수가 있죠.

이제 언어학 본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어의 기본매체는 소리이므로 음성학, 음운론은 언어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음성학은 첫째로 아직까지 말소리가 기술된 적이 없는 언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방언적인 소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물론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음의 차이란 무한할 수 밖에 없죠. 차이가 많지만 이것들을 자세히 정밀하게 관찰 비교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인간이 내는 말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과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음성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음운론적 이론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음소론, 생성 음운론, 자립 본질 음운론 등 여러가지 음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립 본질 음운론은 특히 중국어와 같은 말의 성조 체계를 기술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음성학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음성학자는 데니얼 존스 교수였습니다. 데니얼 존스 교수는 옥스포드에서 교수를 하시던 헨리 스윗, 불란서의 빠시, 독일 음성학자였던 휘에토 이 세 분 선배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독창적인 음성학을 이룩한 것입니다. 데니얼 존스 교수의 최고의 업적은 음성학을 영국의 대학에서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시킨 공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초에 존스 교수는 런던 대학의 University College (문리과 대학)에 별도로 음성학과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음성학은 더욱 확장되고 비교적 새로운 학문인 언어학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학과 결합하여 "음성학 및 언어학과"라는 과로 발전하였고 저도 현재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런던 대학의 음성학과는 세계적으로 음성학 연구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스 교수가 돌아가신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수제자인 김슨 교수가 교수를 하시다가 역시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오코너 교수가 계신데, 이 분들은 영어 음성학, 일반 음성학 특히 오코너교수는 영어의 억양에 대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런던 대학 음성학과 출신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